北韓의 觀光實態硏究

허 향 진
제 주 대

Ⅰ. 머 릿 말

최근에 국제정세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면서 우리가 위치한 東北亞地域에도 매우 빠른 行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北韓에도 對內外的 사정에 의해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북한에서 가장 변화된 분야의 하나가 바로 觀光産業이다. 北韓은 종전보다 더욱 눈에 띄게 최근 관광산업 진흥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北韓은 이미 1984년 9월에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에서 「合營法」을 채택한 바 있다. 총 5장 26조로 구성된 이 法의 주요 내용은 합작가능 부문을 공업, 건설, 운수, 과학, 기술, 관광 등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法이 발표된 이후 아직까지 큰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호텔, 커피숍, 백화점, 병원 등 서비스 부문은 다소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北韓이 이처럼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는 목적은 악화된 외환사정을 타개하고 사회주의 제도 및 주체사상을 선전하는데 용이한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국가들 중 가장 폐쇄적인 北韓에 있어서 觀光의 개방은 상당히 더디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외문호개방은 외국인 여행자의 자유로운 여행

의 허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외부로의 자유로운 여행이 보장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북한은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외국인 북한내 여행을 과감히 허용하지 못하면서 일면 관광객유치를 해야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심각한 재정난 해소와 각종 대단위 개발, 그리고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소비재산업육성에 막대한 자본, 외화가 필요하지만 수출이 연간 30억달러에도 미치지 않아 외화획득을 거의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북한당국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개발을 통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귀한 외화를 벌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주위의 개방의 물결이 더욱 세차고, 중국과 소련의 개방종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상기한 목적에서 관광지개발를 비롯하여 관광기구와 관광시설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관광분야 수준은 북한당국의 관광에 대한 인식미비, 빈약한 시설 및 서비스제도 등으로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년초 북한이 추진했던 홍콩까지의 전세기 취항계획이 관광객부족으로 실패했던 것이 그 단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런데 북한에는 미지의 풍부한 觀光資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보다 유연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게 되면 관광산업은 상당한 수준까지 개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北韓의 觀光政策과 觀光資源의 실상을 파악하여 장차 북한의 대외개방 중에서 가장 손쉬운 조치인 관광개방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더 나아가 남북한 관광교류를 강구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고는 북한에 대한 관광자료가 아직 미흡한 실정에서 탐색적 논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두며, 지금까지 발간된 정부간행의 북한관광 관련자료를 기초로 하여 기존연구논문 및 최근의 정세에 따른 시사를 참고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北韓의 觀光政策

北韓은 정권 초기부터 소련과 동구 각국과 마찬가지로 자급자족적 경제정책을 채택했으나 이것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처럼 개방정책에 의해 밀려나지 못하고 오

히려 '경제에서 자립'이라는 주체사상과 연관이 되면서 지금까지 自力更生의 原則으로 살아남아 있다. 자력갱생의 원칙은 자급자족적 경제건설을 위해 자체의 부존자원과 자체의 기술 및 경제운영 방식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북한의 개방정책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1] 北韓은 관광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들의 퇴폐적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관광산업을 낭비적이고 안일한 생활을 추구하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등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80년대에 들어서서 자력갱생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合榮法 제정이나 관광사업 진흥으로 일면 개방의 자세를 보여 왔다.[2] 즉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하고 그 후속조치로 1988년 11월에 '합영공업부'를 신설하고 합영사업을 일층 활성화시키고 있다. 1989년 9월까지의 총 합영건수는 59건으로 이 중 27건이 재일교포(조총련)와의 합영이다.[3] 이 가운데 규모가 큰 합영사업은 주로 관광사업으로 금강산국제개발회사, 양각도호텔 건립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외에도 북한은 평양시를 비롯하여 잠재성이 풍부한 지방의 유명관광지인 금강산, 원산, 묘향산, 백두산, 개성 등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관광지개발에 나서고 있다.

사실상 北韓이 본격적으로 관광사업에 나선 것은 1987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1986년 12월 종전의 旅行管理局을 觀光總局으로 확대시킨 북한은 1987년 7월 백두산, 원산, 개성, 판문점 등 9개 지역을 관광지역으로 선포하였다. 같은해 9월에는 世界觀光機構(WTO)에 가입하였으며 WTO본부가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북한 관광대표부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 파리에 북한관광총국 지사의 설치를 교섭중에 있다고 한다.[4] 또한 북한은 관광시설을 정비해 가면서 최근에 관광총국 산하에 국제여행사와 청년여행사를 설립하여 일본과 미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 및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제여행사는 해외 2백여개의 여행사들과 여행알선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1) 崔東熙, "北韓의 變化可能性", 國土統一院, 「統一問題硏究」 (第2券 1號), 1990 봄호, pp.211~212.

2) 崔東熙, 앞의 글, p.212.

3) 내외 통신, 앞의 글.

4) 崔東熙, 앞의 글, p.213.

Ⅲ. 北韓의 觀光資源 및 開發의 實態

1. 觀光收容能力의 實狀[5]

최근 北韓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연간 약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70% 이상에 해당하는 관광객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육로로 들어오는 中國人과 만주에 거주하는 僑胞들이며, 그 이외에는 日本의 교포, 東歐, 기타 유럽인들이다.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면 우선 숙박시설과 음식제공시설이 있어야 하고 서비스도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관광수용태세를 살펴보고자 하면 우선 관광호텔의 수용능력과 그 수준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89년말 현재 북한내 관광호텔과 고급초대소, 여관, 야영소 등을 제외하고 영업가능한 시설은 20개 호텔에 3,190실이며 개관을 앞둔 2개 호텔 4,000실(유경호텔 3,000실, 국제호텔 1,000실)을 포함하면 7,000실 수준에 이른다. 지방에 있는 관광여관이라고 하는 호텔까지 포함시키면 약 8,000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호텔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 등 4개등급이 통용되고 있고 80년대에 건설한 호텔들은 주로 특급, 1급에 해당되는 고급호텔들이며 객실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또한 북한은 金剛山開發計劃에 객실 3,000실 확보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90년대 중반에 10,000실 이상의 관광호텔의 객실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관광숙박시설은 관광객 입국이 저조함에 따라 오히려 공급능력이 과다한 실정이고, 시장수요와 계절적인 요인 등을 고려한 숙박시설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광지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지방관광의 촉진에도 어려움을 안고 있다.

---

5) 윤창운, "북한에도 관광의 개방바람이 불고 있는가?",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 1990년 7·8월호, pp.26~35 參照.

또한 북한은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관광호텔을 건설하고 관광객유치를 기도하고 있지만 서구의 반응이 매우 미비하고 프랑스와 합작으로 추진했던 평양의 半角島호텔(1,000실)은 공사중단의 상태에 놓여 있다. 재일조총련자금으로 지은 金剛山朝總聯관광호텔(240실)이 유일한 대외자금으로 건설된 호텔이다.

관광숙박시설의 서비스수준은 사회주의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상당히 뒤떨어져 있으며 1987년 북한내 商業大學에 觀光科를 설치하면서 관광종사자를 양성, 배출하고 있고 외국어전공자는 관광안내자로 배속시키고 있다. 더우기 경직된 관료체제하에서 관광서비스의 제공과 엄격한 중앙에서의 감독, 공무원 신분의 근로자인 이들 관광종사자들로부터 친절하고 부드러운 서비스를 창출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여행업의 경우, 북한의 현재 조선국제여행사의 조직과 기능으로는 해외시장개척에 어려움이 많다. 예산상의 문제로 해외관광선전 조직망의 운영이 어렵고 국제관광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와 유경험자의 부족으로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의 여행사와 접촉하여 여행사간부를 초청, 북한의 유명관광지를 답사시킨 후 관광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나 북한의 관광수용태세 미비와 시장성이 낮은 이유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관광객 유치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통사정을 들 수 있는데 특히 도로 사정이 나빠 남포항-평양-사리원-개성구간 고속화도로를 제외하고는 노면상태가 좋지 않거나 비포장도로 상태에 있다. 북한은 산악지대, 깊은 계곡으로 형성된 지형이 많아 고속도로 건설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를테면 元山高速道路(200㎞) 건설에 120개 교량, 30여개의 터널을 만들어야했을 정도로 狼林山脈을 뚫는데 많은 고충을 겪어야만 했다.

공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정이 좋지 않다. 국제공항은 현재 順安국제공항 뿐이고 지방의 공항은 청진, 회문공항 이외에 원산, 신의주, 三池淵 공항이 있으나 간이비행장에 불과한 실정이다. 북한은 도로망과 공항시설의 미비로 관광수용태세에 난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쉽사리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外國觀光客이 북한으로 입국하는 루트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항공편 입국은 서구관광객의 경우 서베를린에서 출발하여 모스크바를 경유 順安비행장으로 들어오고, 中國에서 출발하는 관광객은 북경공항을 통해 순안공항으로 입국하게 된다. 그리고 日本 관광객의 경우는 니이가다ㅡ시베리아 하나로프스크ㅡ순안공항노선에 취항하는 부정기여객기를 이용하게 된다. 이처럼 항공노선이 단조롭고 항공편의 운항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고작 주 1~3편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국제열차는 매주 금요일에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시베리아와 만주를 경유하여 평양(8,666㎞)가지 운행한다. 이 노선과 더불어 시베리아경유 연해주노선(10,214㎞)은 핫산을 거쳐 두만강역으로 들어와 평양까지 운행하는데 운행횟수는 모스크바에서 주 2회이다. 북경ㅡ평양간 국제열차(1,347㎞)는 주 4회 운행되고 있다. 한편 외국여객선은 가끔 南浦港과 元山港에 들어오는 정도이다.

2. 觀光資源現況

북한에는 金剛山 등 자연관광자원과 대동문 등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한 편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萬景臺 등 金日成 우상화와 관련된 소위 「혁명사적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은 조선국제여행사가 마련한 스케줄에 따라 千篇一律的인 여행에 참가하게 된다. 첫날은 평양시내 관광, 그 이튿날부터 지방관광을 관광버스나 열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관광대상지는 개방이 허용된 9개소, 즉 묘향산, 남포, 원산, 금강산, 해주, 개성, 판문점 등이다. 함경도의 함흥이북지역, 평안북도(신의주제외), 황해도내륙지방은 관광객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다.

관광코스에 포함되어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자연경관지, 사적문화자원, 현대문화시설, 김일성우상화 상징물 및 장소, 산업시설, 농장, 건강관리, 전통민속, 레크레이션 및 스포츠, 향토음식, 쇼핑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북한은 취약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극히 일부분의 관광명소만을 이용하고 있다. 예컨데 關西八景이 있는 평안도에 평양의 모란봉 練光亭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7개소는 대외선전은 물론이고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우상화와 관련된 기념물이나 장소는 각종 선전물에 빠짐없이 소개하고 있으

〈표1〉 지역별 관광자원현황

지 역	북한한 측 공개 관광자원	한국측 평가유망자원
함 경 북 도	○兩江道구역 : 백두산, 천지, 三池淵 ○鏡城(온천관광지) ○七寶山	○백두산, 천지, 三池淵 ○주을온천, 鏡城온천지구 ○七寶山 ○長連湖(漁郎郡)
함 경 남 도	○咸興市 : 麻田해안관광지	○走戰湖호반관광지 ○廣浦(咸州) ○龜景섬(咸興市) ○千佛山(榮光) ○學士台(利原) ○遮日峰(赴戰郡)
강 원 도	○元山市(강원도에 편입) : 松濤園(해수욕장, 위락시설, 동물원, 식물원, 호텔 등) ○金剛山 : 외금강, 해금강, 삼일	○松濤園 ○明沙十里 ○國島 ○鶴浦 ○천아포 ○今欄山 ○외금강 ○내금강 ○侍中湖(현 江東浦) 관광휴양지 ○小洞庭湖(구侍中湖) ○해금강(총석정) ○三防峽산간휴양지(洗浦郡)
평 안 북 도	○慈江道구역 : 소개없음 ○東林폭포 ○妙香山 : 寶賢寺, 팔만대장경, 天神폭포	○洗鉢亭(滿浦市) ○仁風樓 ○五佳山동물보호지역 ○青山八景 ○統軍亭(의주 · 관서팔경) ○朔州八景 ○藥山東台(寧邊郡) ○妙香山 ○九十九曲(寧邊郡) ○꽃동굴(价川郡) ○龜州八景(구주시) ○※龍窟 ○龍原동굴(价州郡) ○上草동굴(香山郡) ○白嶺大窟(价川郡)
평 안 남 도		○慈母山(順川郡) · 慈母山城 · 慈母山 동식물 보호구역 ○降仙樓(成川郡, 관서팔경) ○香楓山(成川郡) ○綾城八景(江東郡) · 三十六洞天 · 東明聖王陵(大林山) ○東明聖王陵(中和郡) ○고구려 古墳郡(평양시, 江西)
平 壤	○평양특별시 : 牧丹峰, 을밀대, 부벽루, 普通江, 大城山城, 大同門 ○南浦市 : 臥牛島해수욕장, 서해갑문 ○大成골프장(江西)	○평양시 : 練光亭(관서팔경), 牧丹峰, 을밀대, 부벽루, 大城山城, 安鶴宮址(고구려왕성)
황 해 도	○海州市 : 首陽山, 夢金浦, 兄弟島관광지	○九月山(은율군) : 은율팔경, 具葉寺 ○正方山 : 정방산성, 성불사 ○長壽山(載寧郡) : 石洞十二曲 ○석담구곡(碧城郡) ○夢金浦(長淵郡) ○九美浦(長淵郡) ○꽃재굴(長淵郡) ○塔洞山동굴보호구역(瑞興郡) ○豊川八景(과일군, 옛松禾) ○花山八景(安岳郡) ○首陽山 ○봉산십이경(봉산군) ○형제島(해주시) ○大角山동물보호구역(遂安郡) ○延白온천지구(延吉郡)
경 기 도	○개성직할시 : 공민왕릉, 박연폭포, 관음사, 성균관, 판문점, 고려인삼밭	○개성 : 성거산(박연폭포), 五冠山, 고려왕릉, 기타 文化사적지

資料 : 韓國觀光公社, 「관광정보」, 1990년 7 · 8월호.

나 천연석회동굴, 동해안의 경승지, 65개소에 이르는 온천지, 그리고 내륙고온지대의 무수한 자연보고와 경승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주체사상에 배치된다고 하여서인지 우리 선조의 文化史積이 대부분 관광자원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북한은 내부적 사정, 주체사상, 관광자원에 대한 평가기준의 차이, 수용태세의 미비 등으로 공개하거나 선전하는 관광자원이 극히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한에는 훌륭하고 잠재된 관광자원이 매우 많다.(〈표1〉 참조)

3. 觀光開發의 實態

북한은 관광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인식한 이후부터 제2차 7개년계획에 이어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에는 의욕적으로 잠재성이 풍부한 관광지인 金剛山, 元山, 妙香山, 開城, 平壤市지역을 집중 개발하기로 하였다. 예컨데 金剛山을 국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釋王寺·金剛山綜合開發計劃을 수립하여, 금강산의 관문인 元山港을 재개발하여 국제항구도시로 확장하고 관광객을 평양에서 금강산까지 수송하기 위한 고속도로를 개통하였다. 그 이후 평양시 및 근교의 문화시설, 산업시설 그리고 원산시내 관광시설(송도원지구)과 금강산지구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면서 매년 그 대상을 확대시켜가고 있다. 종래에는 불교사찰을 관광선전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특수역사문화시설로 취급하면서 유명사찰을 보수, 단장하고 관광코스에 포함시키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순수한 觀光開發事業의 차원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순수한 觀光開發事業이란 觀光客이 觀光活動을 함에 있어서 의도하는 바가 自意的이고 能動的인 상태가 유지되는 분위기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다.[6]

그런데 실제로 현재까지의 觀光開發의 주된 방향은 혁명사적지나 혁명전적지 등

6) 金萬福, "北韓의 觀光開進에 따른 展望과 課題", 한국관광학회「90년대를 맞이한 한국관광의 전망과 과제」, 1990.2, o.3.

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답사행군, 참배, 순례 등을 실시하는 정치·사상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觀光開發**의 **實態**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觀光地開發**[7]

1) **金剛山圈** : 북한은 금강산 관광의 관문인 元山의 시가지를 정비했고 새로운 **驛舍**를 신축하였다. 이미 1981년말 **外金剛**의 순환등산로(동석봉-세존봉-천선대-구룡연-만물상)가 완공되었으며 **內金剛**의 만폭동과 **表訓寺**까지의 등산로, 구룡연, 만물상지역은 노폭확장과 함께 안전시설을 보강시켰다. 관광객이용시설로는 三日浦에 해상관광을 위해 보우트, 유람선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호텔(12층), 여관(7층) 및 「목란관」 등의 대형식당을 건설하였다. 최근에는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진료소가 설립되었다.

2) **妙香山圈** : 1978년 8월 金日成이 외국에서 받은 각종 선물 2만6천여점을 전시한 「국제친선전람관」을 건립하면서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이외에도 등산로, 휴게소, 숙영소, 요양원, 관광호텔이 세워졌으며 **普賢寺**에는 **八萬大藏經保存庫**가 신축되었다.

3) **松濤遊園地** : 金日成의 교시에 따라 60년대초 이미 유원지가 조성되었다. 각종 연회장과 체육시설을 갖추었으며 인공호수 및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순환도로와 관광객 이용시설이 마련되었다.

4) **白頭山圈** : 북한은 특히 白頭山에 金日成혁명활동을 부각시키기 위한 김일성동상, **普天保전투승리** 기념탑, 三池淵혁명사적관 등의 상징물을 세워 혁명전적지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곳을 답사하는 노동자, 청소년학생들을 위해 각종 이용시설과 학생소년궁전을 건립하였다. 또 백두산 천지를 관광시키기 위해서 100명이 승차할 수 있는 지상궤도식 열차가 설치되어 있고 백두산 일대의 관문인 혜산시가 대대적으로 정비되었다. 白頭山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三池淵에서 백두산까지의 도로포장을 완공했고, 등산로변에 4각철주를 5m간격으로 세우는 등 등산로정비와 안전

7) 金永圭, 「北韓의 觀光資源現況 및 開發實態」, 國土統一院, 1985. pp.102~110參照.

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5) 平壤圈 : 북한은 평양시를 혁명의 수도로 상징화하면서 70년대부터 도시개발과 미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金正日이 이 사업을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진두지휘하면서부터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북한은 외국인관광객을 의식하여 대동강유역과 근린산악 등 자연경관자원개발에도 힘써 대동강유원지, 능라도유원지, 대성산유원지, 동방식공원(모란봉) 등을 건설, 확장하고 각종 동·식물원, 체육시설, 유희시설도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도심지개발에 역점을 두고 「창광거리」, 「문수거리」 등을 개발한 후 도로변에 10~30층 규모의 아파트군을 비롯하여 호텔건립에도 힘쓰고 있다.

6) 咸興圈 : 북한은 최근 함흥시의 동해안에 자리잡고 있는 麻田遊園地를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유원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아래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즉 낚시터, 어린이유희장, 문화회관 등의 시설을 새로 건설하며 10만㎡ 규모의 화초원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나. 觀光商品開發

북한은 외국인관광객을 위해 2박 3일부터 39박 40일까지 다양한 여행일정으로 짜여진 관광코스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태권도배우기 관광(23~40일간), 온천관광(25~40일간), 산업관광, 골프관광, 문화관광, 진흙치료관광, 식도락관광 등의 특수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을 유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내에서 관광가능한 도시를 보면 종래의 평양, 원산, 남포, 개성 이외에 신의주, 해주, 과일(종래의 황해도 松禾郡, 현재 이 지역은 사과, 배를 집중 재배하는 과일농장이 많이 있으므로 郡名을 고쳐 부름), 경성(함경북도에 위치한 대단위 온천휴양단지와 고려자기 생산공장이 있음), 청진, 회녕(국경도시), 남양(국경도시), 두만강역(북한-소련간 국제열차가 통과하는 역)이다. 그리고 교통사정이 나은 고속도로와 철도연변에 있는 관광휴양지를 곁들여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함흥시의 麻田觀光團地, 侍中湖 호반휴양지, 평양-개성구간의 철도와 고속도로가 각기 경유하는 황해북도 내륙의 瑞興 휴양지, 평양-원산간 중간지점에 위치한 新坪휴양

지가 관광코스에 포함되어 있다.[8] 북한은 관광지의 대외개방을 주로 교통망과 연관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Ⅳ. 北韓觀光의 問題點 및 展望

북한이 관광사업에 대한 수요를 인식하고 여러 가지 개발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관광사업을 동시에 개혁·개방과 연계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국면이다.

특히 북한이 관광에 대한 대외개방을 신중하게 하는 주된 요인은 폐쇄적인 주체사상에 물든 체제에서 개혁을 두려워하는 민주화수용태세에 미비때문이다. 이외에도 다른 요인은 각 관광지와의 교통망 미비에 따른 접근도 부족과 자유로운 여행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앞에서 살펴 본 북한의 관광실태를 통해 개략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의 개발목표와 수준에 있어서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예컨데 북한은 우리 나라의 국민관광지와 유사한 개념의 인민휴식터, 위락시설과 공간을 유희장으로 파악하고 있고 국민을 위한 휴양, 휴게, 숙식, 요양의 수준과 질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적 요건만 충족시키는데 있으므로 우수한 내용, 서비스질을 자연히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한이 쌍방 협력하에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인식의 차이에 따른 마찰이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둘째, 관광사업은 완벽한 관광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각종 기반시설과 수용태세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人民奉仕" 차원에서 제공하고 각종 서비스를 공식적 일상업무나 노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처럼 고객을 위

8) 윤창운, 앞의 글, p.34.

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서비스향상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힘쓰는 것과 극히 대조적이다. 관광시설의 관리에 있어서도 영리추구와 고객관리를 위한 사업수행의 태도와 관심을 찾아보기 힘들다.

세째, 관광개발을 위한 합작투자가 시장성이 보장되지 않아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북한은 외국자본유치를 위해 合營法을 제공하고 이를 전담하는 정부기구로서 대외경제사업부, 합영공업부를 곧 이어 설치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합작실적이 부진한 주요 원인은 투자에 대한 수익성 보장의 불확실성, 외채상환 지연에 따른 대외신용도 추락, 자력갱생식의 경제정책, 시장의 협소 등이다.[9] 또한 자본주의적 기업경영 경험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선진외국의 투자가들을 유치하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개방을 통하여 많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의지가 있으나, 점진적으로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을 도입하는 태도의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의 관광정책은 한낱 구호에 그칠 소지가 많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북한당국이 어떠한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 장차 관광사업발전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주변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전보다 관광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내외적인 개방압력에 따라 북한의 대외개방 중에서 가장 손쉬운 조치인 외부로의 관광개방정책을 더욱 적극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광개발 사업 초기에는 관광객의 행동에 자율성을 배제하여 왔음을 감안하여 관광발전을 조명한다면 북한도 점차 국민관광이 활성화되고 외국인관광객의 왕래도 증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V. 맺 음 말

북한이 점차 관광산업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등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合營法 제정 이후 호텔건립과 위락시설 등의 조성과 관광지개발 등 관광자원의 개발

9) 내외 통신, 제657호, 1989.9.15 參照.

사업이 조금씩 추진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번 남북경제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남북한 관광교류의 문제가 거론된 바 있으며, 최근의 북한 내부 움직임도 외국과의 觀光事業 합작을 추진하고 있어 관광사업에 대한 관심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은 합영사업이나 관광사업을 통한 개방정책이 비록 경제자립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이나 사회주의 혁명이데올로기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하에서의 파행적 국제관광정책, 외환사정을 타개하는 용이한 수단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감한 관광개방을 할 수 없는 고민, 기반시설과 수용태세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관광객유치 등은 분명히 북한지역의 관광발전에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우선 관광사업발전의 선결요건들이 하나씩 해소되어야 관광을 통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남한과의 관광교류도 가능할 것이다.

더우기 남북한간의 관광교류의 실현은 민족간의 상호이해와 평화공존, 그리고 통일의 지름길이 될 것인 바 상호보완적인 관광교류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金福萬, "分斷 南北韓 觀光交流를 위한 先行課題 硏究", 濟州專門大學 論文集, 1989.

———, 北韓이 觀光改進에 따른 展望과 課題", 한국관광학회, 「90년대를 맞이한 한국관광의 전망과 과제」, 1990.2.

金永圭, "北韓의 觀光資源現況 및 開發實態", 國土統院, 1985.

北韓硏究所, 「北韓總覽」, 1983.

윤창운, "북한에도 관광의 개방바람이 불고 있는가?",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 1990년 7·8월호.

崔東熙, "北韓의 變化可能性", 國土統一院, 「統一問題硏究」, 1990 봄호, 1990.3.